

방송시간 자율화의 정치학과 24시간 사회의 등장

임종수(EBS 정책기획실)

1. 서론: 방송의 시공간성과 일상의 문제

영화 <집으로>에서 도회지 꼬마 상우는 전자오락기의 건전지가 다 떨어지기 전까지,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외딴마을 시골에서도 그리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자신의 능력으로 탈출할 수 없는 외딴 오지이지만 게임기와 플러블레이드는 공간적인 격리로부터 상우의 서울생활을 부족하나마 지탱해 낸다. 물론 멀지 않아 상우는 시골의 삶에 적응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외할머니의 사랑이라는 큰 가치를 경험한다. 만약 그곳에 전자오락기가 아닌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텔레비전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인간적 채워를 찾기는 했을 테지만 상우는 꽤 오랫동안 텔레비전을 통해 도회지 삶과 소통했을 것이다.

원작자의 의도를 익히 알면서도 텍스트를 비틀어 보는 것은 참으로 재미있다. 그 속에는 원작자가 생각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DMB가, 와이브로가 혹은 HSDPA가 상용화된 시대였다면 상우와 외할머니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방송통신 융합 환경은 언제 어디서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는 언제든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우리들 삶의 주위를 두겹 세겹 에워싸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 역시 그러한 시대에 걸맞게 어떤 순간에도 켜져(on-air)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24시간 체제로 운영되는 위성 DMB의 출범과 곧 이을 지상파 DMB의 개국은 이러한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

방송시간 연장, 더 나아가 종일방송으로 받아들여지는 방송시간 자율화는 궁극적으로 지상파 시간의 자율화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시청자 선택권 확대, 소외층 대상 프로그램 확대, 외주산업 활성화, 디지털 전환 재원마련, 높아지는 낮시간 및 심야시간 시청률 등의 근거가 제시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프로그램 질 저하, 지상파 광고 독점 심화, 미디어 균형 발전 저해 등의 부작용이 만만찮게 제기되기도 한다(윤석년, 2004; 최충웅, 2003; 김진웅, 2001). 예전처럼 과소비, 전력사정의 악화라는 개발론적 시각은 다소 줄어든 반면 프로그램

의 질적 제고와 매체간 경쟁논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전자가 비단 지상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 때 지금의 방송시간 자율화 논쟁은 시장을 매개로 대립각이 세워지고 있는 셈이다.

이 글은 최근 방송계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상파 방송시간 자율화가 가져오는(가져올지 모르는)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지상파 방송시간 정책의 마지막 과제가 될 방송시간 자율화 문제는 일상의 시공간적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최근의 논의는 지극히 산업론적 시각에 경도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문제는 수용자 복지라는 정책적 차원의 일상적 삶이 지상파 방송시간 정책에 따라 어떻게 구성되어 왔고 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이다. 일상과 연결되어 있는 지상파 방송시간 변화는 그 자체로서 ‘일상의 구조변화’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우선 우리사회에서 방송시간 확대가 함의해 온 역사적 궤적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 볼 것이다. 이어서 이른바 유비쿼터스 시대 방송시간 자율화가 가져올 24시간 사회를 성찰해보고자 한다. 이 글은 방송시간 자율화를 찬성 혹은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최근 방송시간 정책에 만연해 있는 산업론적 시각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입장에서 방송시간 연장이 함축하는 사회문화적 변화와 그 함의를 고찰하는데 주목한다.

2. 지상파 방송시간의 정치학

1) 방송시간의 근대적 규율: 발전 해게모니

공적, 사적 영역의 비분절과 시공간의 장소귀속성, 절기에 따른 생활시간 등으로 대표되는 전근대적 시간개념은 근대적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재편되어 왔다. 여기에는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시공간 개념이 등장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내밀한 차원에서 작용하는 권력이 있다. 푸코(Foucault, 1994)는 권력이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느냐에 의존한다는 통찰을 제공한다. 그런 점에서 시공간의 사용방식은 관계맺기를 통한 권력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시간은 시계시간의 표준화와 동일성을 바탕으로 미세하게 분할되고 연속된 흐름의 배열, 즉 다양한 주체에 의해 구조화되는 시간표(schedule)의 시간 분할과 계열화를 통해 권력을 삽입시킨다. 인간활동은 단위시간을 계열화하고 배치하는 방식에 따라 조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화 이후 노동영역에 도입된 ‘시계-시간’(clock-time)의 규칙성과 조직성(Thompson, 1982)은 일과와 여가시간, 학

교수업시간, 수면시간 등 삶의 크고 작은 것에 이르는 많은 것들을 규율하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일상생활의 시간표화’(Lash & Urry, 1998)에 따라 ‘측정된 시간’은 ‘체계화된 시간’으로 전환되고, 시간체계는 시간표를 작성하는 사람과 따라야 하는 사람 사이의 권력관계를 틀 지웠던 것이다.

텔레비전 방송시간은 다른 어떤 것보다 국민의 시간사용과 관련된 생활질서 규율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텔레비전의 스케줄링 자체가 무정형의 ‘자연적 시간’에 변형을 가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당연히 어떤 힘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전신, 라디오, TV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행동통일, 다시 말해 개별적인 시간경험으로 흩어져 있던 것을 한데 모으는 ‘동시성’의 중심기제로서(Kern/박성관 역, 2004 3장; 이재현, 1993 참조) 시간사용 규율을 작동시킨다.

일반적으로 지상파 방송시간의 동시성 규율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내용에 의한 규율’과 ‘시간사용에 대한 규율’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전자가 특정 시간에 소비되어지는 내용이라면 후자는 시간 자체에 대한 의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율은 근대사회의 공적, 사적 영역의 분화에 대응하는 ‘생산의 시간’과 ‘재충전의 시간’의 논리 속에서 실현되었다. 여기에서 텔레비전은 후자의 기능을 충족시키는 대표적인 테크놀로지였다. 그러면서도 근대화 프로젝트와 동시병행적으로 도입된 텔레비전은 국가의 변화발전을 직접 목격하도록 하는 생산성의 계몽도 함께 부여받았다. 한국에서 그것은 이미 텔레비전 설립 취지에서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개발연대 초기 텔레비전 정착의 산과 역할을 했던 공보부 장관 오재경(1973, 163쪽)은 국영 KBS의 설립을 1) 여론을 만드는 서울 시민의 병든 마음을 성하게 고치기 위해, 2) 새로워지는 나라와 겨레의 모습을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눈으로 보고 그들의 생활로 삼게 하기 위해, 3) 혁명정부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삼기 위해서였다고 요약한다. 따라서 1960-70년 방송문화는 엄격한 정치적, 도덕적 통제 하에서 근대적인 합리적 주체상을 세우기보다 노동 이후 저녁시간에 어지러운 세상사를 잊고 가족들과 단란한 한 때를 보내거나 국가발전의 대열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더 큰 미덕으로 간주되어왔다(서규석, 1968년 3월; 서규석, 1969년 2·3월). 노동시간에 부여된 물질적 근대화의 덕목이 텔레비전이 방송되는 사적인 시간에게까지 확장되어 이른바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던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낮시간 방송은, 방송사의 준비부족 및 전력의 한계 등의 이유도 있었지만, 애초부터 존재의 명분이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초기 방송시간 규율 속에는 ‘발전 헤게모니’의 논리가 관철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낮시간 텔레비전 시청 금지는 그 시간에

.....가정에 있는 주부나 어린이(의 문화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아침시간 눈물을 짜내는 습오페라는 확실히 생산성과는 거리가 먼 이미지로서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비문화적’이까지 했던 것이다. 물론 주기적인 산업적 생활패턴에 따라 낮시간 재택률이 낮다는 것과, 생산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전력 낭비가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 하는 손쉬운 근거였다. 의욕적으로(?) 실시한 아침방송이 석유파동으로 인해 힘없이 삭제된 것도 방송시간과 개발론의 함수관계가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으로 보면 심야시간 방송규제는 충분한 수면으로 다음날 생산성 향상을 보장해야 하는 요구와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낮시간 혹은 심야시간 방송은 사적 생활이 쉽사리 가벼운 것으로 치부되는 구조 속에서, 근대국민의 생활시간 직조에서 애초부터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낮방송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낮시간 방송은 주로 국가의 공식 공휴일이나 국제 스포츠 행사 등이 있을 때 시행되던 일종의 ‘이벤트’였다. 따라서 국가와 공적영역이 분화되지 못했고 방송 역시 오랫동안 국가권력의 테두리를 외피로 삼아왔던 전통에서 낮방송은 국가가 국민의 여가생활을 위해 베푸는 일종의 시혜였다. 그 시혜의 대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기념할 내용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다. 명절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가족물, 현충일, 국군의 날, 광복절의 반공물,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에서 한국 선수들의 열전을 국가주의로 승화시키는 스포츠물 등은 국민국가의 국민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계기성’ 있게 제공해 주는 유용한 프로그램들이었다. 80년대 주말 프로야구 중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만큼 ‘특별한 날’의 낮방송은 일상적인 편성에서 다하지 못한 ‘특별한 내용’을 추진할 수 있는 유용한 공간이고, 방송 당국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낮방송 통제를 관습화해 왔다.

결국 방송시간이 내포하고 있었던 규율체계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화와 텔레비전 방송 정착이 동시병행적으로, 그것도 압축적으로 이루어진 1960-70년대 ‘발전 헤게모니’가 관통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비단 한국만의 현상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물질 조건을 축적시킨 연후에 텔레비전 황금시대(1950-60년대)를 맞은 서구의 방송 사회사와 비교하면 한국에서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방송시간에 대한 통제는 단순히 텔레비전 시청의 제한만이 아니라 국가가 근대화의 장으로 국민을 정렬시키는 내용적, 형식적 통제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방송시간 연장 담론의 지형

방송시간 연장 담론은 1988 서울올림픽을 분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 올림픽 기간 동안의 국민적 응집력(?)과 이후 점차 자율화 경향에서 보인 문화적 자신감(?)이 그 근거였다. 이후 4년마다 개최되는 올림픽과 최근 2002 월드컵 등은 방송시간 연장 논의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구체적인 실천으로는 1990년 KBS1이 종일방송을 검토한 바 있고, 1993년에는 MBC 창사특집 ‘생방송 24시간 TV’가 있었다. 특히 1995년에는 정부(공보처)의 ‘선진방송 5개년 계획’에 따라 1997년부터 방송시간을 전면 자율화한다는 발표가 있었고(경향신문, 1995. 7. 15) 실제로 1997년부터 5월부터 낮방송이 1시간 연장되었다(서울신문, 1997. 6. 1). 2000년대 들어서는 2001년, 2003년, 특히 2002년에 월드컵 4강의 분위기 속에서 한동안 낮방송이 암묵적으로 시행되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방송협회가 방송위원회에 방송시간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90년대 초반이래 방송시간 연장담론은 약 5년을 간극으로 새로운 입론(argumentation)이 대두되는 국면을 맞았다. 올림픽의 아우라가 채 가시기 전인 90년대 초는 때맞침 등장한 민영방송과 소비사회로의 진입 분위기가 있었지만, 여전히 개발론적 이념이 강하게 남아있어 방송시간 연장이 ‘과소비’와 거의 동일시되었다. 이 담론에는 전력의 과소비는 물론이고 노동시간의 축소 혹은 텔레비전 시청으로 인한 다음날 노동생산성 저하, 광고 노출에 따른 가계 소비의 증가 등이 포함되었다. 아래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기간동안의 방송연장을 과소비로 보는 많은 기사들 중 하나이다. 광고를 사이에 둔 신문과 방송의 배타적 이해관계를 감안하더라도(동아일보, 1992. 6. 9; 동아일보, 1994. 3. 4) 방송시간 연장에 경제발전의 악영향이라는 전통적인 논리가 관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방송시간 연장이 “풀어진 국민적 정서의 고삐를 잡지 못함으로써 예견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이완현상의 심화”(동아일보, 1992. 6. 22)라든가, 심지어 “올림픽 허풍”(한국일보, 1992. 6. 21)으로 보는 ‘방송시간 = 소비시간’이라는 발전주의 인식이 여전히 유효했던 것이다.

오늘의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것은 풀어질대로 풀어진 발전과 도약의 의지를 다시 결집하여 제도전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다. 아직 큰 성과를 올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사회 각계에서 일고있는 에너지 절약운동이나 쓰레기줄이기운동의 싹을 잘 키워나가 이를 바탕으로 경제침체의 위기도 극복하고 성숙한 문화국민으로서의 긍지도 살려나가야 한다. 올 여름 성수기를 맞아 에어컨이 작년의 절반도 팔리지 않는 것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무언중 동참하는 증거이기도 하다(동아일보(사설), 1992. 7. 7).

과소비 담론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중요한 화두이기는 하지만 문화소비의 미덕이 점차 강화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왜소해 질 수밖에 없었다. 90년대 중반 이후 방송시간 연장에 대한 ‘저질문화의 범람’ 담론은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빚어진 새로운 입론이었다. 저질문화 담론은 연장된 방송시간이 준비없는 단순 재방송이나 값싸게 제작된 낮은 수준의 프로그램으로 점령된다는 지적으로부터 출발했다. 특히 90년대 중반 케이블방송이 시작되면서 갑작스럽게 넓어진 방송 소프트웨어의 외연은 험사리 저질문화로 치부되었다. 당시 준비의 부족은 방송시간 연장이 방송사의 요구보다 ‘위’에서의 요구가 더 컸기 때문이었다. 사실 90년대 중후반 지상파 방송시간 연장은 신규 케이블 방송의 24시간 체제에 따라 국가 차원(당시 공보처)에서 주도되었다. 따라서 지상파로서도 입장정리가 확실치 않은 가운데 새로운 시간대의 방송문화 패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형국이었다(조선일보, 1995. 7. 23). 결국 90년대 중반 본격화된 소비문화의 트렌드 속에서 방송연장의 과소비 담론은 점차 문화의 저질화 논쟁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고 이는 다채널 환경과 급조된 정책이 가져온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케이블TV의 본격화와 함께 위성방송까지 가세하면 바야흐로 방송계는 다채널 다매체의 홍수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더욱이 TV방송시간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대량수요를 가져오기 때문에 방송구조의 대지진이 예고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 방송국의 제작여건으로 봐서 종일방송이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저질프로가 양산될 수밖에 없고 궁여지책으로 외국프로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합량미달 프로들이 판 칠 가능성이 짙다는 것이다(세계일보, 1995. 7. 16).

저질문화 담론은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90년대와 달리 2000년대 방송시간 연장은 지상파 방송사가 주도하고 있고 그 대립각도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전환했다. 2002년 월드컵 이후 지상파는 방송시간 규제가 ‘자율성을 해치는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방송위원회도 “채택근무, 주5일근무 등의 실현”을 근거로 방송시간 연장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화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새로운 입론으로 등장한 것이 신규 미디어와의 ‘균형발전’ 담론이었다. 즉 이 시기 방송시간 연장은 ‘지상파 독과점 구조의 심화’라는 비판담론으로 재설정되고 있었던 것이다. 케이블과 위성의 유료 가입자 시장이 커졌음에도 여전히 지상파와 지상파 PP들의 시장 점유율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지상파의 방송시간 연장은 ‘가진 자의 횡포’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다

(서울신문, 2002. 4. 9). 결국 2002년 방송시간 연장에 대한 방송위원회와 케이블TV협회 PP협의회 간의 대립이나 최근 지상파 방송협회와 신규 매체 협회, 방송 플랫폼 사업자들간의 대립처럼 최근 지상파 방송시간 자율화는 매체간 ‘밥그릇 싸움’ 국면으로 전환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방송시간 연장은 개발론적 시각으로부터 출발한 과소비 담론으로부터 저질 문화의 확대, 매체간 균형발전 등으로 이어져 왔다. 따라서 방송시간 자율화는 점차 정치 지배논리에서 산업 지배논리로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근대화 초기에 설정된 생활시간 이분화의 해체모니가 점차 약화되고 산업 주체들간의 이해관계가 이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속에서도 방송시간의 전면적 해체와 재조정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예고되고 있다. 24시간으로 운용되는 DMB의 현실화는 이를 더욱 가속화시킨다. 따라서 매체로서 지상파 및 위성 DMB가 어느정도 성공적일지 모르지만, 이동성, 개인성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으로서 DMB 혹은 유사 매체는 케이블, 위성 및 인터넷 방송 등과 더불어 정보화, 재택근무, 주5일 근무 등으로 대표되는 후기산업사회의 24시간 라이프 사이클을 보편화시킬 것으로 보인다(최용준, 2003; 윤태진·이창현·이호규, 2003 참조). 이어지는 장에서는 일상생활의 대중문화 지형에서 매체환경 및 방송시간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를 고찰한다.

3. 방송의 일상 경험 구성과 24시간 사회

1) 방송시간과 일상적 경험

방송시간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수신 단말기, 채널 및 매체 수의 양적 팽창은 근대적 시간 구성과 일상적 경험 양식과 조응해 왔다. 통상적으로 일상과 연동되는 방송 시간표는 프로그램의 배분(distribution)으로부터 흐름(flow)이라는 유동적인 편성 개념을 확립함으로써 제 기능을 발휘한다(Williams, 1974). 초기의 편성은 대체로 시청자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에 맞추지만, 한번 편성된 흐름은 일정정도 시청자의 라이프 사이클에 영향을 미친다(이재현, 1999). 그리고 그러한 시청자 라이프 사이클은 일상적 규칙성(dailiness)이라는 동시성을 구성해 낸다(Scannell, 1996). 물론 다양한 채널 및 매체 환경은 각기 다른 시간표를 통해 일상적 규칙성을 구성해 낸다. 따라서 지상파는 물론이고 새로운 매체가 구성하는 각종 프로그램 및 특별한 날의 이벤트 프로그램 등의 흐름은 우리의 일상적 삶 속의 ‘추상적 시간’을 ‘경험적 시간’으로 대치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점차 일상생활로 침투해 들어간 방송 매

체는 일제시대의 오폭(午砲)나 사이렌과 같은 경험적 시간의 일상적 규칙성 형태를 방송 프로그램으로 대체해 왔던 것이다.

지금까지 지상파로부터 출발하여 다매체 환경에서의 방송 편성과 일상생활의 접합이 낳은 일상적 규칙성은 민족(혹은 집단), 가족, 개인으로 이어지는 각기 다른 차원의 경험을 구성해 왔다. 방송 초기에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민족’ 혹은 ‘집단’의 차원이었다. 스캐넬(Scannell, 1989)은 1930년대 영국의 라디오가 신기한 테크놀로지를 넘어 일상생활의 리듬을 구성하는 매체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에 의하면, 스포츠 이벤트나 왕족의 대관식, 그 외에 드라마나 쇼 등을 통해 새로운 활기와 기대에 찬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특정 시기가 요구하는 ‘공유된 민족국가의 삶’(shared national life)을 창출했다고 말한다. 그럼으로써 민족 구성원 대부분이 기억하고 가슴에 담는 일종의 민족국가달력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즉 영국에서 BBC의 시간계획(달력)은 ‘공통’을 나타내는 표시이자 그날 그날을 지속시켜나가는 ‘집합적인 공적 삶’의 지표로서 수용자가 방송에서의 유사 공적 삶(pseudo-public life in broadcasting)을 살아가는 길잡이였다는 것이다. 방송은 민족국가 구성원들의 시간사용에서

제한적인 가정생활을 제공함으로써, 이산인, 헤이카체(cittizale)인, 동리선인, 그석제 내던져 버린 것이다.

텔레비전을 통한 민족적 혹은 집단적 경험은 텔레비전이 그리 많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1가구 1텔레비전을 초과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2002년 월드컵 시가 대규모 거리응원전과 집단시청은 공유된 민족국가의 유사 공적 삶의 대표적인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약국, 거리의 전파사 등 ‘공공장소’ 혹은 텔레비전 소유 가정에서의 ‘집단시청’에서 익히 경험된 바이다. 멕시코 올림픽(1968), 아폴로 11호의 달착륙(1969), 멕시코 월드컵(1970), 남북적십자회담과 7·4공동성명(1972), 10월유신(1972), 뮌헨 올림픽(1972) 등과 같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스펙타클라(spectacular)는 텔레비전의 존재 의의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을 통한 공공적 삶과 정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근대 민족국가의 국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상징적으로 재구성해 냄으로써 공동체의 한 일원임을 자각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민족 혹은 집단적 차원에서의 방송 경험에서 한 단계만 거치면 ‘가족’이 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이동성의 사사화’(mobile privatization)는 가족매체로서의 독특한 지위를 통해 변화무쌍한 외부세계를 내재화하고 내부세계를 다시 외부의 삶으로 연결시켜내는 20세기 사회의 특성을 간파해 낸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공적 사안의 경험을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 안으로 제한함으로써 현대인들의 삶과 정서가 ‘가족단위의 생활패턴’으로 구조화되었다.

것이다. 따라서 저녁시간대 줄떠로 연결된 일일극과 넘쳐나는 발전주의 담론, 혼분식 및 가전제품 광고 등은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소비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상징체계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는 보호할 만한 전통적인 가족주의와 민족적 정서에 대한 호소가 있었다. 일찍이 미국에서 시행되어 좋은(?) 선례를 남긴 가족시간대(Family Hours) 개념에 따라 유신헌정이 국민통제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했던 이른바 ‘편성지침’이나 80년대 ‘소비적’이라는 이유로 일일극을 금지시킨 것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저녁8시 혹은 9시에 어린이 시청금지 시간으로 규정한 것이나 라디오에서의 아침기상 시간과 국민체조, 각종 시보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국가의 가족들(또한 기업들도)의 시간사용에 개입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1980-90년대 가족매체로서 텔레비전은 민족이나 가족의 차원을 넘어 ‘개인화’ 과정으로 가는 과도기적 변화를 겪었다. 1가구 1텔레비전을 넘어선 1가구 다(多)텔레비전 시대의 도래가 그것이다. 한 가정에 있는 두 대 이상의 텔레비전 수상기는 방송시간 활용을 가족시청 개념에서 개인시청으로 전환시켰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바쁜 현대인의 일상생활을 두고 본다면 가족시청 시간은 지속적으로 개인 시청시간으로 대체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서구(Robinson & Godbey, 1999)나 한국(<http://kosis.nso.go.kr>) 모두에서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점차 증가해 왔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는 점차 인터넷과 같은 개인 미디어의 소비가 증가하는 대신 지상파 소비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주당 텔레비전 시청시간 1990(16.3시간) → 2000(23.7시간) → 2004(22.2시간)). 이는 특히 나이든 세대보다 젊은 세대에서, 저학력 집단보다 고학력 집단에서 뚜렷한 징후를 보인다. 여기에 방송시간이 연장되고 궁극적으로 24시간 방송이 실현되면 방송 수신자의 시공간 분리와 개인화는 더욱 극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 유비쿼터스 사회와 24시간 방송

기술진보에 대한 산업적 필요는 방통 콘텐츠가 언제 어디서나 소비되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예고하고도 남음이 있다. 따라서 이동방송, 종일방송으로서 유비쿼터스 지상파 방송의 실현도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니게 되었다. 거기에는 가정으로부터 방송이 분리되는 방송 매체의

은히 이동성과 개인성을 보장해 주는 것만이 아니고 가정적 안정성의 조건(Silverstone, 1994)을 궁극적으로 바꾸어

정되는 이동성 매체의 등장은 단순히 가정에서의 텔레비전 시청이라는 존재론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종일방송은 출근 전 아침시간이나 퇴근 후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 준, 산업사회의 오락·정보 매체로서의 존재론적 지위를 분산시켜 혼자서 소비하고 평가하는 ‘나홀로 매체’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동성, 개인성 매체가 아니라도 복수의 고정형 매체의 종일방송 역시 매체의 존재론적 위치를 바꾸어 놓을 것이다. 가정에서, 가게에서, 사무실에서 홀로 시청하는 텔레비전 역시 가정에 있는 두 대 이상의 텔레비전만큼이나 문화소비의 개인화를 촉진시킨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방송시간 자율화는 궁극적으로 개인시청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림으로써 ‘마이TV’(my TV)라는 극단화된 개인매체 활동으로의 전환을 내포한다. 매체의 편재성과 시간의 확장이 나홀로 매체라는 매체 생태학적 진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나홀로 매체는 공동체의 분화를 가속화시킬 것이 자명해 보인다. 이는 세대간, 지역간, 학력간 ‘차이’를 심화시킬 위험성을 내포한다. 사실 돌이켜 보면, 한국 가정에서의 텔레비전 이용은 남녀간, 부모자식간의 커뮤니케이션 단절만큼이나 텔레비전 이용에서도 단절과 고립이 습관화되어 왔다(임종수, 2004). 바쁜 근대화 와중에 부모는 자식을 텔레비전이라는 편리한 보모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아이들 역시 또래 집단과 어울릴 수 있는 소재로서 텔레비전의 매력에 이끌릴 수밖에 없었다. 텔레비전으로의 의존과 개별화는 사적 공간에서의 삶을 늘 대화의 부족이라는 ‘아쉬움’으로 습관화시켰던 것이다. 그러한 아쉬움은 이제 중국적으로 어떤 질적인 변화를 예고하는데, 그것이 내 손 안의 TV든 개인이 위치해 있는 사적 공간의 TV든 - 마이카 풍속이 그러했듯 - 마이TV는 외부세계는 물론이고 일차적 관계로 여겨왔던 가족과의 끈끈한 관계도 느슨하게 하는 이른바 ‘24시간 사회’를 더욱 촉진시킨다. 텔레비전 시청이 함유하고 있었던 장소귀속성의 완전탈피는 개인이 어디에든 유목할 수 있는 상황을 보장한다.

24시간 사회는 우리 삶을 제약했던 시간이라는 구조물을 해체시켜 궁극적으로 공적, 사적 영역과 같은 공간의 경계마저 희미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런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원하는 바로 그 순간’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어디든지 유목할 수 있기 때문이다 (Kreitzman/한상진 역, 2001 참조). 점멸하는 온(on) 상태의 커뮤니케이션 환경 하에 있는 24시간 사회는 개인으로 하여금 원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개개인은 네트워크 속의 한 인자의 형태로 언제든지 접속하고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다. 따라서 24시간 사회는, 24시간 동안 눈을 밝히고 사는 사회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필요에 따라 어떤 일이든지 처리할 수 있는 사회이다. 여기에서는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의미하듯, 디지털로 네트워크화된 세계가 관계를 형성하고 일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편재

되어 있다. 따라서 그것에 접속하는 주체는 어떤 집단도 가족도 아닌 순전히 개인으로 축소된다. 공적인 사안이 사적 세계(개인)로 전달되고 사적 세계의 삶 역시 쉽사리 공적 세계와 결합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9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증가하는 심야족과 주시청시간대의 연장, PC방 등은 24시간 사회로의 진화의 징후를 보여준다.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할인점, 영화관, 택시, 버스와 공항터미널, 라디오, 호텔, 병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24시간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 개원한 ‘서울숲’은 24시간 개방체제를 기본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 죽은 시간이라 생각했던 밤이나 짜투리 시간은 살아있는 정치, 경제, 문화활동이 펼쳐지는 회소자원 개념으로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밤과 낮이라는 전통적인 리듬과 무관하게 일하고 쇼핑하고 잠자고 논다. 일찍이 3교대 근무의 24시간 운영체제가 개별적인 가치로 무장한 개인의 형태로 생활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의 공식적인 활동 무대에서 구축해 온 주체는 각자의 개성에 따라 움직이고 사고한다. 방송시간 자율화는 이와 같은 변화의 움직임에서 궁극적으로 24시간 방송을 겨냥하게 된다.

24시간 마이TV 시대의 일상은 그동안 인간이 맺어왔던 자연과 사회와의 ‘궁극적인’ 분리 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버마스(Habermas/McCarthy(trans), 1984)의 견해를 빌리면, 인간은 이성의 진화에 따라 자연적 삶으로부터 사회의 이탈 즉 ‘자연의 탈사회화’와, 사회적 삶으로부터 자연의 이탈 즉 ‘사회의 탈자연화’를 매우 강렬하게 경험한다. ‘자연의 탈사회화’란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감각화되어 있던 인간의 사회성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감각의 텍스트로 인해 소멸되어 감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는 여행을 가거나 MT, 귀향과 같이 보다 자연적인 공간으로의 이동 후에도 언제든지 인위적으로 구축한 사회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일대 일, 일대 다수의 커뮤니케이션이 24시간 가능한 상태에서는 비록 내가 자연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인위적 사회가 주는 즐거움(영화, 드라마, 쇼 등)과 정보(뉴스, 교통정보 등), 지식(교육)과 언제든지 네트워킹 될 수 있다. 공공 장소에서 거리낌없이 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공공 영역의 사유화) 모바일의 세계(김신동 2001; 김평호, 2002)가 방송 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자연과 사회의 이분법 속에서 자연적 존재로서 인간이 기억하고 감각화해야 할 자원들이 어떤 단말기 혹은 어떤 콘텐츠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가는 것이다.

‘사회의 탈자연화’는 사회 속에 잠겨 있는 자연적 관계의 회식화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자연적 관계로서 혈연적 관계는 24시간 마이TV 시대에 가장 강한 변화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의 범주에 있었던 삼촌이 근대화 과정에서 친척으로 분화한 것만큼이나 라

디오와 텔레비전,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의 활용은 할아버지와 손자 세대는 물론이고 부모와 자식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줄임으로써 직계마저도 소원한(?) 관계로 만들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집안에서 2시간짜리 비디오를 시청한다는 것은 적어도 2시간 이하의 가족간 커뮤니케이션 시간의 소멸을 의미한다. 24시간 방송은 텔레비전으로 인해 ‘마실다니기’의 소멸이 더 크게 확장되어, 인간이 태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여겨왔던 순수 혈연관계이자 사랑 공동체로서 가족의 의미마저 크게 축소시킬 것이다. 가족이 식구라는 전통적인 개념에서 공동체가 활동단위의 개념으로 바뀐 바로 그 곳에 순수한 개인이 꽃을 피우는 것이다.

탈사회화되고 탈자연화된 개별 인간은 문화와 생활환경의 디지털화(being digital)에 대응하는 미디어 활용주체의 디지털화, 다시 말해 디지털 존재(digital being)라는 존재론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들 주체는 디지털 텍스트를 소비하기에 적합한 디지털 인간으로 자기진화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개인은 자신이 위치한 사회경제적 영토로부터 벗어나 둘 혹은 그 이상의 정체성으로 무장한 ‘비동시성의 탈영토적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디지털적인 존재는 인간의 아날로그 신체와의 모순으로 인해 각종 육체적, 정신적 병리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징후는 청소년 가출, 엽기적인 살인행각, 사회부적응자 등으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병리적 현상만 있는 것은 아니다. 향후 쌍방향성이 도입된 궁극적인 형태의 디지털 텔레비전 24시간 방송은 ‘원하는 바로 그 순간’에 뉴스와 드라마, 쇼오락, 다큐, 스포츠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체 소비 방식’ 자체를 바꾸어 놓을 것이다. 24시간 방송이 가져다 줄 미래가 어떤 것인가는 지금의 뉴스소비 행태의 변화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산업사회 이래로 뉴스의 소비는 출근과 퇴근, 평일과 주말, 낮과 밤 그리고 하루, 일주일, 한달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단선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동되었다. 따라서 일간지의 경우 조간과 석간에 따라 하루동안 일어난 사건과 사고가 아침 혹은 저녁 시간대를 기준으로 정리되고(편집되고) 소비되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소식은 다시 그 시간대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러한 기다림은 기다림이라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24시간 매체는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90년대는 케이블과 온라인의 등장으로 뉴스가 실시간으로 제공되었고, 보다 최근에 와서는, 포털미디어가 보여주듯, 뉴스소비 주기 및 소비내용 등이 그 이전과 본질적으로 달라졌다.

문제는 지상파가 어떤 콘텐츠로 24시간을 채울 것인가 일 것이다. 지금의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행을 두고 볼 때,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이 강력한 예비후보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의 문화적 설정상태(cultural set)가 과도한 ‘엔터테인먼트’ 속

에 ‘인포’가 사라지는 형식상의 오락적 과잉성이 보편적이다. 가령 월드컵 기간 동안 방송위가 연예·오락 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연장을 허용한 바 있었지만, 주요 프로그램은 연예인과 슈퍼모델을 리포터로 활용하는 연예 오락프로와 유사한 포맷을 보였다(경향신문, 2002. 4. 23). 따라서 실제조사에서처럼, 연장방송 시간의 프로그램이 정보/교양(37.0%)이 스포츠(32.6%)나 코미디/버라이어티쇼/토크쇼/음악(11.6%)보다 높다고 해서(강익희, 2003, 109쪽) 쉽게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육아, 미용, 패션 정보를 타이틀로 내걸었음에도 형식상의 오락성은 애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물론 여기에는 광고시장을 둘러싼 발빠른 계산의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가 근대사회 대중문화의 첨병이라고 했을 때, 갑자기 넓어진 낮방송이나 심야방송에서 그동안 보여주지 못한 문화의 향취로 설정하는 것이 처음부터 외면될 필요는 전혀 없다. 수용자들에게 가져다 줄 상업주의적 정서는 수용자의 개별화만큼이나 우리의 문화를 척박하게 하기 때문이다.

4. 결론: 24시간 방송, 유토피아? or 디스토피아?

방송시간 자율화는 단순한 일이 아니다. 특히 지상파는 더욱 그러하다. 방송에 생활리듬을 맞추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방송시간의 확장은 당연시되고 있는 일상의 구조변화를 뜻하기 때문이다. 방송시간 자율화는 사회의 전반적인 24시간 체제화 속에서 보편적 정서 및 가치의 소멸과 개인화의 심화, 복수의 정체성, 매체소비 행태의 변화, 상업적 콘텐츠의 범람 등을 예견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시간 자율화는 24시간 사회로의 진화 속에서 언젠가는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산업론적 이해관계에 함몰된 채 진행될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사회를 보다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획은 17세기 이래로 문화에 의한 자연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와 결합한 산업적 논리 속에서 날로 강력한 힘을 추동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오후시간 또는 심야시간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지상파 방송시간을 어떤 공익적 가치로 실현할 것인지의 고민은 생략될 수 밖에 없다.

물론 근대화 시기 국가권력에 의한 방송시간 규율은 상당부분 해방되어 왔다. 그러나 방송시간 정책의 마지막 꺼풀로 보이는 방송시간 자율화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양과겉질을 겹겹이 싸고 있다. 24시간 방송은 비단 시간의 문제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24시간 사회의 경계는 전지구적이다. 그리고 외면적으로 보면 매우 해방적이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세계, 구조적으로 주어진 시공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4시간을 자신

의 실현을 위해 ‘창조해 가는’ 세계는 일찍이 맑스가 예견했던 유토피아와 너무나 흡사하다. 그러나 일찍이 버만(Berman, 1982)이 맑스를 인용하면서 “모든 단단한 것”이 이성의 기획 아래 “자취없이 녹아 사라지는” 것으로 표현한 근대성의 기획처럼, 이후 다시 단단한 것이 되어버린 근대성을 녹여내는 포스트 시대의 24시간 기획이 과연 말랑말랑한(필자는 전혀 말랑말랑해 보이진 않지만) 유토피아로 귀결될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일찍이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은 근대의 기획에서 인간의 이성이 이룩한 엄청난 성과와 동시병행하는 우울한 역사와 전망을 보여준다. 양차 세계대전과 풍요 속 기아의 속출이나 제국주의의 횡포와 제3세계의 소외 등은 도구적 이성애 의한 근대적 합리성의 결과였다. 이것은 확실히 근대가 낳은 모순이자 역설로서 기술의 진보가 절정에 달할수록 더욱 커지는 계몽의 지칠 줄 모르는 자기파괴적 본질이며, 인간 내부의 순진성을 폐기토록 강요하는 야만적인 탈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인간의 인위적인 힘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는 고도의 효율성과 편안함을 선물로 줄 것이지만 불완전한 세계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시대이다. 그런 점에서 24시간 방송은 안락한 리무진으로 편안하게 즐기는 여정이 아니라 불안하게 질주하는 ‘크리시나의 수레’가 될 수도 있음을 지각해야 한다.

통신(radio)에서 시작한 방송(broadcasting)이 보편적인 전자 커뮤니케이션(telecommunication)으로 융합되는 지금의 상황은 순수한 방송이 이제 역사로 기록될 것임을 예고한다. 지상파 방송은 지금 현재 그러한 역사적 변동의 분기점에 서 있다. 여기에서 방송시간 자율화를 개척되지 않은 이윤의 신천지로 가는 티켓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자체로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기본적으로 경제적 성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만이 절대 가치가 되어서는 않된다. 향후 24시간 방송체제에서 지상파 방송은 개인화된 수용자와 상업화된 콘텐츠의 상호결합을 억제해 내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노령세대, 장애인과 같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연장된 방송시간은 이들을 위한 콘텐츠가 활발히 제공되어야 한다. 거기에 더하여 오락적인 상업문화만이 아닌 대안적인 문화나 국가적 현안에 대한 심도있고 다원화된 내용을 과감하게 편성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에게 주어진 편성의 자율권의 의미를 살려갈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익희(2003), 《시청률과 방송정책》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보고서.
- 김신동(2001), 〈호모 텔레포니쿠스의 등장: 이동전화 확산에 영향을 준 사회문화적 요인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5-2호, 62-85.
- 김진웅(2001), 〈방송시간 자율화는 당연하다〉, 《방송문화》 2001년 8월호
- 김평호(2002), 〈이동성, 그리고 사인주의〉,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8호, 36-60.
- 오재경(1973), 《수상20년》 범서출판사.
- 윤석년(2004), 〈방송시간 규제와 자율화: 지상파 방송 방송시간 규제의 문제점〉, 《방송문화》 제63호, 114-124.
-
- 윤태진·이창현·이호규(2003), 〈새로운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도입과 시/공간 및 공/사 개념의 변화〉, 《방송연구》 2003년 겨울호, 179-207.
- 이재현(1999), 《현대사회의 생활양식과 텔레비전》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재현(1993), 〈현대사회에서의 텔레비전 의존과 생활양식의 사사화〉, 《언론과 사회》 제2호, 136-155.
- 임종수(2004), 〈텔레비전 안방문화와 근대적 가정에서 생활하기: 공유와 차이〉, 《언론과 사회》 제12-1호, 92-135.
- 최용준(2993), 《주5일 근무와 TV시청》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보고서.
- 최충웅(2003), 〈지상파TV 방송시간 자율화 정책방안〉, 《방송문화연구》 제15-2호, 131-159.
- 한국방송공사(1987), 〈연도별 TV 주간 기본방송 순서표〉, 《한국방송60년사 별책》 323-447.
- Foucault, M., 오생근 역(1994),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나남.
- Berman, M.(1982), *All That is Solid Melts into Air: The Experience of Modernity*(Simon & Schusterm, Inc.).
- Kern, S., 박성관 역(2004),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1880-1918》 휴머니스트.
- Kreitzman, L., 한상진 역(2001), 《24시간 사회》 민음사.
- Lash, S. & J. Urry, *Economics of Signs and Space*, 박형준·권기돈 역(1998), 《기호와 공간의 경제학》 현대미학사.

Habermas, J., T. McCarthy trans.(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on Action 1: Reason and the Rationalization of Society*(London: Beacon Press).

NHK(Broadcasting Culture Research Institute)(2002), *Broadcasting in Japan: The Twentieth Century Journey from Radio to Multimedia*(Tokyo: Komiyama Printing Company).

Robinson, Jhon P. & G. Godbey(1999), *Time for Life: The Surprising Ways Americans Use Their Time*(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Scannell, P.(1996), *Radio, Television & Modern Life*(Oxford: Blackwell Publishers).

Silverstone, R.(1994), *Television and Everyday Life*(London: Routledge).

Thompson, E. P.(1982), "Time, Work-Discipline and Industrial Capitalism," A. Giddens & D. Held eds., *Class, Power and Conflict*(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Williams, R.(1974). *Television: Technology and Cultural Form*(New York: Schocken Books).

경향신문, 1995. 7. 15 “TV 97년 종일방송/공보처 국회보고/올 하반기중 90분 늘려”

서울신문, 1997. 6. 1. “하오4시의 텔레비전”

동아일보, 1994. 3. 4 “광고없는 종일방송으로”

동아일보, 1992. 6. 19 “올림픽 종일방송/광고수입 눈독 ‘공익’ 뒤킴”

동아일보, 1992. 6. 22 “종일방송은 중단돼야 한다(사설)”

한국일보, 1992. 6. 21 “올림픽 허풍 더 남았나(사설)”

동아일보, 1992. 7. 7 “종일방송 자체의 허구(사설)”

조선일보, 1995. 7. 23 “방송시간 연장 TV3사 ‘편성비상’”

세계일보, 1995. 7. 16 “종일방송, 길이 문제다(사설)”

서울신문, 2002. 4. 9 “방송시간 연장 싸고 시끌”

<http://kosis.nso.go.kr>